



8월27일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주제로 열린 네번째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에서 법주 지운 스님은 "최근 음식에 대한 계율을 가벼이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 후 "음식을 섭취한 물 가운데 의해 마음이 형성되므로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음식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④

주제 :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8월 27일)
법주 : 지운 스님 (동화사 강주)

최근 일부 수행자들 사이에 계율과 수행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율을 수행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계율을 파하는 것이 수행인 양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계율을 가벼이 여겨 음식을 전혀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와 오신채 그리고 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기를 드셨다' '그런 것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어느 경전에도 없다' 등등의 말로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 음식에 대한 계율을 지키지 않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모든 계율이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 법회에서는 음식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육체와 마음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계율과 수행의 상관관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승가의 청정함을 천명하는 것이며, 우리 수행자들이 다 함께 계율을 지킴으로써 더 많은 깨달음 이들과 선지식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수많은 사 람들을 살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논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율받아 지나야만 스님 인정

우선 계율이 제정된 목적을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계(戒)는 금계(禁戒)로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을 막고 악을 그치기 위해 개인이 지켜야 할 수행적 덕목이지만, 승가의 차원에서 볼 때에는 곧 율(律)이 됩니다. 율이란 범률로서, 승가를 수호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계에 어긋나면 경중(輕重)에 따라 처벌로써 다르다고, 순을 하면 편안하게 하여 승가를 수호,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열 가지 뜻을 <사분율>에서 살펴보면 '승가에는 거두어 지게 한다(攝取於僧)'는 것은 출가 조건이 계율이며, 계율을 받아 지나야만 승려로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이어 '승가를 기쁘게 하고(令僧歡喜)' '승가를 인락하게 한다(令僧安樂)'는 것은 승가의 화합을 뜻하는 것으로, 화합은 또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를 믿게 하고(令未信者信)' '이미 믿음이 있는 이의 믿음을 더욱 지라게 하고(已信者令增長)' '길들이기 어려운 이를 잘 길들이게 하고(難調者令調

順)'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는 이를 인락하게 하고(慚愧者得安樂)' '현재의 유무를 끊게 하고斷現在有漏)' '미래의 유무를 끊게 한다斷未來有漏'는 것은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수행은 발심과 믿음에서 출발

수행의 첫걸음은 발심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에 의해 발심이 지속되는 것이며 믿음은 선악의 인과의 이치를 잘 아는

계율 잘 지키면 선정 일어나고 깨달음으로 이어져 음식이 중요...승가 식생활 전통으로 환원했으면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율에 의해 악업을 막고 선을 증장케 하고, 생사고(生死苦)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보리심(發菩提心)하면 계율로써 믿음이 일어나고 증장되어 수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법이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려는 것이다(正法久住)'는 바른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것이 곧 계율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계율을 부정한다면 승속(僧俗)의 경계선이 사라져 세속화를 가져오고, 화합을 깨뜨려 존단을 불안하고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수행자가 수행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지켜지지 않는 보살계, 비구계를 주고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으로 계율을 지킬 수 없지 않냐고 라고 반문할 수 있습

계율 안 지켜도 깨치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풍토 사라져야

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계율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현실'에 두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근거가 현실이 아니라 '법(法)'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은 변화하는 생법(生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은 불생멸의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계율을 현실에 맞추는 것은 그 계율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계율을 현대 상황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계율은 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통용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계율과 깨달음의 관계를 살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戒) 없이 정(定)과 혜(慧)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제정해 삼학(三學)은 분리되지 않는 한 몸입니다. 마치 그릇이라는 계(戒)가 금이 가거나 깨져 있다면 정(定)이라는 물이 새거나 고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라는 그릇이 새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정이라는 물도 움직이지 않아 고요한 상태가 되어 물이 맑아지고 수면에 상(相)이 비추거나 밑바닥을 볼 수 있게 되는 해(慧)라는 깨달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고 수행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잘 지켜나간다면 선정(禪定)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유교경(佛遺教經)>에서는 "계를 의지하면 모든 선정을 얻어 고를 없애고 지혜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비구들은 마땅히 깨끗한 계를 가져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는 번뇌, 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립니다. 아무리 수행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계율을 파한다면 선정을 이룰 수 없고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 번뇌·망상 일으키는 조건 없애

그렇다면 왜 선정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깨달음이 선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종밀 선사는 <선원제전집도서(禪原諸詮集都序)>에서 '선정이란 행(行)은 가장 신묘(神妙)하여 성품 위에 무무지혜(無漏智慧)와 일체의 신묘한 작용 및 온갖 행과 공덕(功德)을 드러낼 수 있으며, 나아가 신통광명 모두가 이 선정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해 깨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상이며 '혹은 미남 미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 것은 과거 애욕의 습이나 음욕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진이 생기는 이유가 모두 계율과 관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근(善根)과 계율은 온갖 마의 현상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원호 스님은 '즐거한 사람이라면 계율을 위우고 재가자라면 <보살계본>을 외워야 한다. 삼귀의와 5계 등을 위우면 귀신들이 바로 물러 나거나 슬슬 기어 도망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선근의 힘이 굳어지거나 계율을 잘 지키는 수행자라면 마진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은 오직 마음편임을 자각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만 해도 이를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깨달음은 선정을 통해 일어나고, 선정은 계율에서 나온다면 계율의 역할을 분명합니다. 선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계율로 묶어둠으로써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율은 모든 수행덕목의 밑받침이 됩니다. 수행자의 과거 악습과 악업의 영향은 순간적으로 퇴굴심을 내고 깨끗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계율입니다. 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관찰하면 5대 현상인 지(地)수(水)화(火)풍(風)공(空)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대가 육체를 이루고 있지만 또한 무지, 분노, 자만, 탐욕, 집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육체의 기운에 의해 마음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또한 마음이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신채, 음식과 성냄 형성

화두를 참구하는 마음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육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수행의 주체가 의식이며 의식이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화두참구 중에 몸이 피곤하면 졸음이 오며 몸의 기운이 왕성하면 오히려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밖의 경계에 그대로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탄탄을 최소화하기 위

법회 동영상 중계 hompy.buddhapia.com/homepy/morals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속뜸용구 -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대박점은 틈새업종

하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치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속이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속뜸을 할 수 있다.

오양속뜸기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속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치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속뜸기 (무릎관절)

제품의 특징

- 좌측기 내부에 온열판 장치으로 속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됨.
- 이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삼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치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측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양좌측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전에 의해 개발

특허 등록

ISO 9001:2000

UKAS

의료용구 제조등록허가: 제 00962호
의료용구 제조등록허가: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제 0308942호
실용신안등록: 제 0312970호
실용신안등록: 제 0329980호
의정등록번호: 제 0344295호
의정등록번호: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번호: 제 017299호

대리점 및 속뜸기 체험방 모집 문의전화

오양속뜸기, 음양속뜸기, 오양좌측기 등을 점진량 및 사무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특정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02)521-4453

www.moxa4u.com 오양속뜸·좌측기/음양속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 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山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기사님의 지문을 받습니다.
- 山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솟아 오르지 않는 山寺 참꽃 조청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직체의 해소, 신경조율, 혈압,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황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시지관절, 중풍과 양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형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현식, 기침, 거담, 배변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70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해 계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음식에 관한 계율이 더욱 중요하니다. 고기, 오신채 등이 몸의 기운을 성하게 하여 음식육을 일으키니 수행에 많은 장애가 됩니다.

<능엄경>에서는 '오신채를 익혀 먹으면 율란한 마음을 발생시키고,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오신채가 율란한 마음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오신채가 성육의 불의 요소를 생성,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오신채가 성념의 불의 요소를 활성화시킴을 말합니다. 이는 오신채의 영향이 불과 물의 요소를 만들고 불과 물의 기운은 음육과 성념을 형성시키는데, 이 마음이 삼마지(선정)를 닦더라도 보살과 하늘과 신선과 시방의 선인들이 와서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정을 얻기 힘들음을 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의식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고기나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똑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은 것입니다. 즉 고기를 먹는 습관 때문에 살생을 해서라도 고기를 취할 마음을 일으키고 실제로 살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는 분노의 불요소를 생성시키고 분노의 힘을 형성하며, 술을 마시면 지혜종자가 끊어지고 무지를 일으키며 여리석게 되고 우둔하게 되는 마음이 형성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능가경>에서는 '고기 맛을 버리는 자는 정법의 말을 듣고, 보살지위에서 여실히 수행하여 속히 아뇩다라삼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 또한 고기 먹는 사람은 큰 자비의 종자를 잃는다. 어찌 마땅히 이와 같은 큰 이익을 얻으리오'라고 해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근본으

로 해야 함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은 곧 중생과의 상호소통으로 무아(無我), 공(空)이 그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것은 중생구제의 원에 역행하는 것으로 발보리심하여 깨치고자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발보리심 자체는 중생구제가 원(願)이기 때문입니다. 발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생과의 상호소통 즉,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며 그러한 원이 없으니 수행 또한 되지 않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수행하면 계율 저절로 지켜져

수행의 목적은 바로 '일어나는 생각(念)'을 꿰뚫어 보고 그 실체가 공함을 깨닫는데 있습니다. 계율이 강조하는 것은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수행을 하게 되면 계율이 강조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가에서 깨닫게 되면 계정해 삼학이 저절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깨친 이의 삶은 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회에 참가한 재가자들이 법문 내용을 메모하며 경청하고 있다.

여기서 수행에 의해 계율이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깨닫는데 있어서 계율을 파해도 된다면 어떻게 계율이 저절로 지켜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악업을 일으키는 행위는 정화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계를 파하는 행위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를 파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계율과 수행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몸 기운에 의해 마음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마음이 만약 깨달음에 장애를 준다면 그 음식은 마땅히 삼가야 함도 알게 됐습니다. 음식에 관한 계율이라고 할 지킬 수 있다면 선정을 이루고 그 선정에 의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현재 만연되다시피 한 계율에 어긋나는 승가의 식생활을 전통 승가의 식생활로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깨치지만 하면 된다는 일부의 공공연한 그릇된 풍토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승가의 청정은 승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와 인류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승가 본연의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승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오신채와 술, 고기를 먹지 않는 풍토가 정착될 때보다 많은 선지식이 생길 것입니다.

정리=여수행 기자 · 사진=박재민 기자

지운 스님은 1979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82년 법주사 강원, 86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와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다.

93년부터 2002년까지 송광사 강원 강주를 지냈다. 92년 운성 스님으로부터 강맥(講脈)을, 2004년 성우 스님으로부터 계맥(戒脈)을 이었다. 현재 조계종 단일 계단 교수사, 동화사 강주를 맡고 있다.

저서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 <찾간 속에 달이 뜨네> <뿌리 없는 나무에 핀 꽃>(논문집) 역서에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글> 등이 있다.

이 앞장서 항의해야 합니다. 오늘 법회에서 먹는 것 하나도 깨달음과 크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으니, 선지식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던 계율에 대한 재가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승가의 외화집단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스님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재가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자들도 출가자와 마찬가지로 포살을 해야 합니다. 포살을 함으로써 자신이 알게 모르게 계를 파한 것이나 죄를 지은 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논 찬

소승불교 전통따라 뭐든 먹어도 된다?



일진 스님
(운문사 강원 학장 · 단일계단 니갈마위원)

질문 1: 스님께서는 계율의 제정 근거가 현실이 아니라 법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이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운 스님: 계율이 현실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생법(生滅)의 속성을 지닌 현실에 맞춰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율이란 진리, 즉 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계율을 현실에 맞추는 것은 그 계율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계율을 현실에 상황에 맞춰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율이 법에 근거했다는 것은 주고받고 싸우는 현실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을 근거한 것이므로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통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 2: 계율을 지키는 수행승을 오히려 승단 화합을 저해하는 인물로 몰아세우는 경향 등 계율에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포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포살은 좀 막연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운 스님: 남방에서는 포살이 30여분 정도 소요됩니다. 합장하고 계승을 외우고 나면 큰스님이 하루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포살은 작법참회(作法懺悔)로, 자신의 죄목을 들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일면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백ব্য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현대적 재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지

질문 1: 스님께서는 승가의 계율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계와 율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켜야 할 수행적 덕목이지만, 율은 승가의 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와 율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계는 자율적 덕목으로, 율은 타율적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는지요?

지운 스님: 계와 율을 자율적 덕목과 타율적 덕목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윤리는 무엇은 근거로 할까요? 바로 악인과과(惡因惡果) 선인선과(善因善果)입니다. 철저히 계율과 율을 바탕으로 계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다면 누가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교에서의 윤리는 상당히 엄격한 반면에 포살이라는 제도도 있다는 점에서 융통성이 있기도 합니다.

질문 2: 엄격한 계율 준수를 강조하신 스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계율의 현대적 재해석 및 새로운 제정의 가능성에 관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원호 스님께서는 <보살계본지법>에서 계율 준수의 핵심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적

이 밖에도 어느 스님에게나 자신의 잘못을 고하는 가벼운 참회법도 있고, 20여 명의 승가 앞에서 참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방이나 티베트 불교나, 한국불교에서의 포살은 대중소이합니다.

재가자를 역시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한다'고 할 정도로 계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해 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받고, 계를 받은 후에는 포살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질문 3: 스님께서는 음식에 관한 계율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 안에서의 공양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절 밖에서도 공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양문제를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운 스님: 남방은 소승불교이고 북방은 대승불교라는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남방불교에서도 자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양으로서 받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도 공양을 합니다. 하지만 소승불교의 전통에 따라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대승불교는 아라한의 경지를 지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부처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로 원을 세운 북방 불교의 전통에서 중생의 하나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불성입니다. 물론 생활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때는 반드시 포살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과 온전히 일치하지 않는 계율에 대해서는 현대적 재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를 들어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차이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계율도 있지 않습니까? 계율의 조문 그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제정 당시의 상황과 정신을 고려해 현대적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운 스님: 대승불교는 동기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계율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기를 잡는 사람에도 여러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정없이 모기를 잡는 사람도 있고, 모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말려서 안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모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자신이 받게 됩니다. 이처럼 동기에 맞는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대승불교의 계율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비구비구니계의 차이점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비구니계가 많은 이유는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계는 깨달을 수 있는 사다리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을 논해야지, 남자 여자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됩니다. 남녀는 업에 따라 결정된 것이고,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 바로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계율을 세속적인 입장이 아닌 수행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신도들이여, 스님에게 고기·술 권하지 마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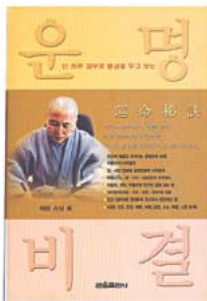
지운 스님의 제안

이 자리에서 승가가 계율을 파하게 되는 때는 재가신도들의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재가자들이 승가의 계율을 잘 모르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승가가 없는 곳에서는 불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가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바로 계율로 유지됩니다. 그런데도 승가를 외호해야 할 재가자들 중 일부는 스님

과 함께 앉아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재가신자의 계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승가의 청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가자들은 절에서 오신채를 먹자고 주장하거나 스님들이 만행할 때 물보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기나 술을 공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혹여 스님들이 술과 고기를 사달라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버려야 합니다. 절에서 오신채를 먹는다고 하면 신도들

운명비결 저자 해광스님 직강 (개인교수)

초칠일에 눈을 떠라!



- 천장비기(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는)의 운명학
- 명리와 육표의 조화와 완벽한 해석
- 전문기를 위한 운명비결 전수

단, 명리, 주역 등 인체의 역학을 설 배워 그 한계를 스스로 벗어 놓는 사람은 이 학문에 취 범접치 마시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 없이 요구해 온 운명비결 전수 희망자들을 위해 오랜 숙고 하에 운명비결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 안내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접수 및 등록
- 강의일자 조정 및 홍보 (등록 후 일정 조정)
- 수강자격 : 스님, 포교사, 법사, 운명상담소 운영자. *시작에서 수료까지 6박 7일
- 문의전화 : 010-6252-5247 (오후 1시-7시)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중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 본사 :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02)733-6141 / 팩스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s.co.kr
- 대표 : 범산 원광식 (인간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총량 3000관